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요한복음-

이사야 60:1-3, 요한복음 1:1-14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 한 마디로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열두 가지 문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는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가 많다. 그런데 여호와와 빛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 안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 모자란 일이라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유 상관없이 우리는 살려야 한다. 그것이 진리다. 열두 가지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면 다 자르고, 죽이고, 끊어야 한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결론은 다 죽이는 것이 된다. 가까우수록 그런 일이 많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살려야 한다. 빛은 살리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여러분도 살리는 역할을 현장에서 감당하시기 바란다. 세상에서 만족, 행복, 성공을 얻은 것 같아도 잠시일 뿐이다. 연애해도 잠시 좋다. 결혼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좋다.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 시작된다. 땅에서 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다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알면 행복이 된다. 모든 것을 힘들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영적 문제다. 여러분, 잠시뿐인 세상에 속지 말고, 문제 때문에 속지 마라. 이것 때문에 속다가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공부가 힘들다 하고 나면 끝까지 힘들다. 시험치는 것이 행복해 버려야 한다. 시험 끝나면 전부 끝나는 것 아닌가. 나는 시험기간을 그렇게 누렸다. 이렇게만 하면 전교 1등도 할 것 같더라. (웃음) 문제는 시험지를 내면서 모든 지식도 함께 제출해버리니까. (웃음) 어떤 시험 때는 공부 잘 하던 아이가 한 문제를 잘못 풀었다. 나에게 물어보길래, 정답을 알려주었더니 틀렸다고 안타까워하더라.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시험 전체에서 그것 한 문제 틀리고 전교 1등을 했다. (웃음) 나는 그것은 맞았는데, 시험 전체는 평균 80점 얼마가 나왔다. (웃음) 그래도 나는 시험 볼 때마다 행복했다. 수업이 빨리 끝나니까. (웃음) 힘들게 생각하면 다 힘들지만 감사로 생각하면 다 축복이다. 자녀 양육도, 음식 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직장생활 군 생활도, 빛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빛으로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다.

서론 : 요한복음의 배경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참된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빛의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쉽고도 은혜롭고 정확하게 알려준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 (1) 요한복음은 AD 90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된다. 바울이 죽은 후 20년 정도가 지났다. 디모데후서를 남기고 순교했는데, 디모데후서가 AD 67년 경에 기록되었다고 생각된다. 로마서는 그보다 10년 더 전이다. 마지막 서신서가 기록된 후 20년이 지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모든 메시지가 다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장 쉽게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 (2)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역의 시작과 세계 역사의 끝을 다 보았던 사람이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당시 최고 문제를 일으키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들은 오늘로 따지면 3단계 같은 자들이었다. 최고 엘리트, 석학이면서 영적인 것을 혼란시키던 자들이었다. 이들에게까지 답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쉬우면서도 깊은 메시지다. 40번만 읽어 보라.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30번 나온다. 10번 읽으면 1300번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읽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1. 요한복음 속에 있는 복음메시지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새기족에게도 전달해야 할 요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요한복음 1:12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이해하고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영접할 때 대역사가 일어나고 신분이 바뀌고 권세까지 나타나게 된다.

(2) 요한복음 3:16은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이라 할 수 있다. 신구약성경을 짜서 압축하면 요한복음이 떨어지고, 요한복음을 짜면 요한복음 3:16이 떨어진다. 정말 책을 쥐어짜면 안 된다. (웃음)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엘리트,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세상에 많은 석학이 있고 지도자가 있으나 이것을 몰라서 멸망한다. 그 답이 요한복음 3:16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3) 요한복음 5:24은 구원의 방법과 결과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받는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4) 요한복음 14:6은 새기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역할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는 구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길,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땅의 문제, 지금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면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북한의 흑암도 무너진다. 북한은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데, 공산당의 통제력이 강할 때는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 없었다. 40km 이상 갈 수가 없었다. 이주와 여행의 자유가 없었다. 전부 감시체제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기간을 겪으면서, 이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었다. 공산당이 국민을 먹여살릴 수 없으니까 그 제한을 할 수가 없었다. 국민들이 공산당 대신 장마당을 통해서 겨우 살아남게 되었다. 그렇게 열린 장마당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장마당에서 성경을 판다. 휴대전화나 라디오를 가지고 남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는다. 그렇게 빛이 비추지면 흑암은 무너진다. 남북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정책이 아니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으로 다 살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 세계를 복음화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가야 한다. 살리는 빛이 다 되셔야 한다. 이 몇 개의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면 만나는 사람, 만나는 현장마다 살리게 될 것이다.

2.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영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깊고도 쉽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읽고 연구할수록 은혜가 넘치게 된다.

(1) 요한복음 1:1-14에서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능력과 영생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한다. 요한복음 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다. 이 말씀은 누구인가? 헬라어로는 '로고스(λογος)'다. 인격적인 말씀이다. '호 로고스(ο λογοσ)'라고 해서, 정관사를 붙였다. '그 말씀'이라는 말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 증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 보면, 주어 뒤로 가면 거기에서는 정관사가 빠지게 되어 있다. 주격이 아니라 술격이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헬리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혹은 알면서도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구절을 첫머리에 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 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다. 헬리어로는 '에고 에이미(εγω ειμι)'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가 된다. '나는 나다'라는 말이 곧 여호와다. 여호와와 증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것은, 곧 '나는 여호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것은 전부 '나는 곧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인데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요10:30).

(2)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는 재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큰 문제가 가정에서 시작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 고집, 감정으로 평가하면 가정은 지옥이 된다. 주인을 바꿔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과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빛으로 오셨다. 성전을 갱신시키지 않는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될 때 교회가 회복된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뿌리깊은 믿음이 생긴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요한은 많은 현장의 문제에 어떻게 답을 주어야 하겠는가 고민하다가 영적 작품을 남긴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락방 현장에 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리해야 한다. 복음소식, 복음편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라. 그러면 전달하는 게 너무 쉽다. 겸손히 배우시기 바란다.

(4) 요한복음 3:1-20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듭남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한다. 니고데모는 영지주의, 유대주의, 신비주의가 판치고 있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 지식인, 엘리트,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였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기적을 보고 왔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3:16). 사회 지도자였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주변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확신이 없으면 주변에는 계속 피곤한 일이 생긴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5)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같은 엘리트, 지도자 뿐 아니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이 다섯 명이었던 애인은 몇 명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름답겠지만 왕따였을 것이다. 유대인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가난했을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하는 지경이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예베체를 찾고 있었다. 갈급했다는 말이다.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철저히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병까지 고치는 치유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적인 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답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답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시급하고 어렵고 처절한 문제 아닌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간절함 속에 있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나사로는 죽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라.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얻고

자유받게 되기를 바란다.

(7)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엘로힘, 창조주로 오셨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문제는 진화론으로는 해결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된다. 모든 과학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무에서 유가 나오는 창조에서 비롯된다. 그게 양자역학, 초끈이론 같은 최신 과학의 핵심 원리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탠넛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지식에까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요한은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와 사회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도 답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이 나온다. 7가지 기적은 사실은 표적이다. 증거라는 말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서 5천 명을 먹이셨으며, 물 위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세상의 어느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어느 누가 질병을 완전히 고쳐 버렸는가. 오병이어서 5천 명을 누가 먹였는가. 혹시 누가 여의도에서 오천 명을 먹고, 한강 위를 걷고, 시청 앞에서 소경을 고치고, 수유리 가서 죽은 자 살린 적이 있었는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 : 요한복음 속에서 붙잡아야 할 미션

요한복음 후반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전해야 하고,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과 미션을 요한복음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1) 요한복음 13:34-35를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다. 구약 613가지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단 달란트의 빛을 탐강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리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2)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말씀한다. 성령에 대한 언약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승리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3)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한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참사랑 교회에 여러분과 가문이 붙어있으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훈련에 붙어만 있어도 된다.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떨어지지 마라. 전도함속훈련을 받을 때까지 붙어있어라.

(4)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 이루셨다'고 선언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속죄를 다 이루셨다. 믿으면 우리의 것이 된다.

(5)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세 번 반복되는 대화를 원어로 보면 의미가 좀 달라진다. 처음 두 번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에는, '네가 나를 아가페(αγαπη)하느냐?' 하고 질문하셨다. 이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φιλω)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친구, 형제간의 사랑이다. 아가페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는 사랑, 부족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작은 사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살리는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과 비전과 미션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우주의 창조주이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며, 특히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하는 나라, 민족 되도록 공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